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비전2020

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

교회인근 지역 대상 5개 전도대 편성

오늘 I·II·III부 예배를 드린 뒤 전 교인은 교구별로 나누어 교회 근방을 대상으로 전도에 나서는 노방전도가 있다.

'98 비전2020운동은 민족 75%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운동으로 오늘은 예배 후 각 교구별로 모여 노방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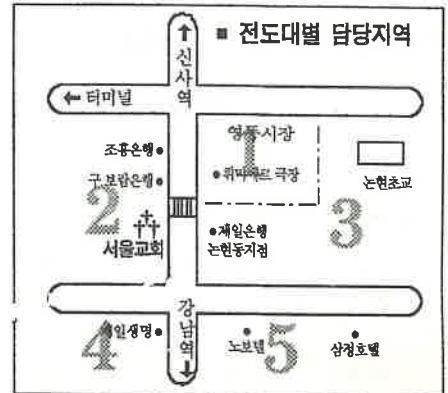
전도대상 지역은 교회 인근으로 영동시장에서 삼정호텔 부근까지 편의상 모두 5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이 5개 지역을 우리 교회 12교구에서 5개 전도단으로 나누어 각기 맡아 노방전도에 나서게 된다.

각 교구별 담당 구역과 모이는 장소는 오른쪽 도표와 같다.

각 교구에 소속된 교인들은 예배 후 전도대별로 먼저 교회 앞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발대기도를 드린 후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도방법은 전도지를 활용하거나 이밖에 각자의 방법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된다.

오늘뿐 아니라 주간 중에도 전도회와 다락방과 교구 모임 후의 노방전도, 축호전도, 잃은양 찾기 운동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교구	전도대상 지역	집결지
제 1전도대	1·2교구	영동시장	교회정문 옆 주차장
제 2전도대	3·4교구	교회 뒷편, 구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구보람은행 앞
제 3전도대	5·6교구	제일은행 뒷편 ~ 논현초등학교 주변	교회 정문 앞
제 4전도대	7·8교구	제일생명 ~ 강남역	교회 앞 (좌측)
제 5전도대	9·10·11·12교구	노보텔, 삼정호텔 부근	교회 앞 (우측)



열린 바자

3일간의 바자 끝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바자가 14일(수) - 16일(금)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됐다. 농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생활필수품과 먹거리 등 다양한 품목들이 이번 바자를 풍성하게 했다. 개장 첫 날 비가 와 다소 우려가 일기도 했으나 많은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조로이 마칠 수 있었다. 바자의 모든 수익금은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건축의 한 모퉁잇돌로 쓰이게 될 것이다. 사진은 3층에 마련됐던 교구별 의류매장.

성경암송대회 12일 앞으로!

교회설립 7주년을 기념하면서 개최하는 전 교인 암송대회예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에서 외울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14-16장이며 유아부와 유치부는 3장 중 1장만 외우면 된다. 또한 96년도 암송범위였던 요한복음 17장은 접수에는 가산되지 않으나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함께 외울 수 있다.

대회일정은 예선과 본선, 최종결선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은 10월 30일(금)과 11월 1일(주일)에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선발된 최우수자 1명이 본선에 오르게 된다.

본선은 11월 6일(금) 오후 7시부터 각 부서별로 선발된 최우수자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 본선에 이어 8시부터 치뤄질 이날의 결선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가리게 된다.

최종 결선자에게는 교회가 마련한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며 부서별로 예선을 거친 최우수자와 우수자에게도 부서별로 시상이 실시된다.

시상식은 11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하게 되며 수상자들은 온 교우를 앞에서 암송 시한을 10초간 기록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를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는 잡혀간 포로가 돌아오고 무너졌던 성이 수축되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복을 누리게 되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1. 만민의 기호로 서시는 메시아

'한 짝'이란 잘리어진 가지에서 뿌리에 근거해서 나오는 짝을 말하며 바로 메시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는 깃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나라의 상징이며 깃대가 있는 곳에는 왕이 있습니다. 또 깃대는 점령지에 꽂는 것으로 영토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깃발이 있는 곳에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만민의 깃발로 세움을 입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깃발이 꽃히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요 12:32).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는 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들리는 날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본문을 이새의 뿌리를 인용하여 주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깃대를 세우면 만민이 모여온다고 했고 모이는 곳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누가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행 2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主)라고 고백을 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증거하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 것이 기독교 2 천년 역사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에는 교회 영광롭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 아무리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영광이 무엇인 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2.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11절에서는 남은 자들이 8군데에서 돌아온

때는 대적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해고(海股)란 바다의 허를 말하는 것으로 헛바닥처럼 생긴 홍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홍해와 유브라데 하수를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을 신고 건너가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레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사 11:10-16)



이종운 목사

다고 했는데 8군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나 혹은 이주를 한 곳이며 전체계를 의미합니다. 앗수르에는 포로가 있었고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피난을 잤었습니다. 바드로스는 애굽의 북쪽을 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곳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또한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엘람은 티그리스강의 동쪽을 말하며 두 강 사이의 땅을 의미하는 시날은 바벨론의 고대 이름을 말하는데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이 모이는 곳을 시날 평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맛은 레바논의 북쪽을 말하는데 BC 720년에 앗수르의 땅이 되어서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또 바다 섬, 다시 말해서 지중해의 많은 섬들에 유대 민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진노의 손이고 또 하나는 자비의 손, 축복의 손입니다.

3. 완전한 평화와 승리

원수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완전한 안전을 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합니다. 모든 악을 누르게 되고 그 악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사 42:16).

여기서 소경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주님 앞으로 끌려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개종자들이 수레와 교자를 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사 66:20).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수레를 타고 영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고 동방의 왕들이 올 것이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게 됩니다. 지금은 무수한 사람들이 해바라기가 되어 권력자에게 모여가고 있지만 그 날이 되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존전에서 바다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어 거기에 대로가 놓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기 위해 몰려오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8비전2020운동 참가자

이 작은 천국에서

김세재(집사, 비전2020운동 기획분과장)

“뭐라요? 2020년에 이 국민의 75%가 크리스찬이 돼? 40일간 밤낮으로 연속기도를 할 수 있다고 바자를 해서 수억원을 모은다고?” 천국 잔치 소문에 사탄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 * *

무엇보다도 이 민족 75%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신나는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빠른 산수 실력으로 모순도 발견하고 기능치도 못할 이 놀라운 꿈을 선포하셨으니 우리의 부족한 것 당신께서 매꾸어 주시고 2020년이 되기 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작은 입술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시고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960시간 밤낮없이 기도의 불을 밝히고자 한 칸 한 칸을 기도의 용사들로 매꾸어 주신 하나님, 당신께서 960칸의 빙고게임을 푸시기 시작할 때 이미 기도의 불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이신 권사님들이 빈 공간을 차곡 차곡 매워 주셨고 젊은 마리아들이 첫날 밤부터 꼬박 당신을 찬양하며 기도에 전념하더니 뿐만 새벽에 새벽기도회에도 참가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바자로 인해 파김치가 된 성도들이 철야연속기도의 맥을 기쁨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신랑되신 당신도 위대했지만 저들의 당신을 향한 사랑도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2020운동의 띠를 착용하고 우면산과 청계산을 누비며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줍고 밝게 인사를 나누면서 이미 우리의 이웃들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해 버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울교회 분들이시군요.” 전해드리지는 전도화장지를 두 손으로 황송하게(?) 받으시는 그들에게 이미 복음의 씨앗 뜨겁게 심고 왔으니 당신께서 귀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추를 가다듬고 파전을 부치며 기쁨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는 바자를 바라보면서 이미 당신의 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 천국에서나 가능할 섬김과 헌신의 축제가 사흘간 이어지면서 벽돌 한 개라도 더 쌓으려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

보시며 “이제 그만 가지고 오거라”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하시고 싶으신지요.

이 작은 천국에서

기도와 섬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갱신되는 기적을 이루소서.

이 작은 천국에서

잃은 양들이 돌아오고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들이 두 손 들고 모여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작은 천국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어른들이 신앙 생활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만대로 복을 받아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병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비전 하나 하나 이루어 질 때마다 사탄들은 멀리 물러가고 교만한 자 하나도 우리 틈에 없게 하시어 우리 모두 꿈 속에서 등실 등실 춤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금주의 비전2020운동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

▶24시간 연속기도회

오전6시 - 오후 10시: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자

철야기도 담당부서 18일(주일) 제1·2권사회
19일(월) 요한3, 마리아3
20일(화) 베드로3, 루디아3
21일(수) 바울3, 에스더3
22일(목) 요한4, 마리아4
23일(금) 스데반회, 대학부

▶교구별 전도교육(18 - 24일)

교구별로 실시

▶금요심야기도회(23일)

주력부대: 3·4교구, 에스더전도회, 사랑부, 청년부, 임마누엘찬양대

▶토요등반전도(24일 오후 3시)

5교구: 청계산(옛골 버스종점에서 집결)
8교구: 우면산(예술의 전당 후문 4주차장에서 집결)

▶잃은 양 찾기 대상자 선정 및 명단 제출 (18, 25일)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8 비전202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송정희 유광호	김찬진 김선미 전은정 채성희		
최순애 김은숙 이정자 이하나	곽우윤·고정임		
이두연	박정순 하경수 김숙희 하국수		
박양숙 박도수 박영희 이선경	김영란 진호근 최승호 박경배		
이윤호 방금순 박송제	오준석 하태복 심규형		
박재연 박도순	김성대 조경숙 김화정		
이우상 이해일 황봉운 문원자	김현정 김광석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마치면서

양태영(권사, 3교구, 소망부)

1. 맑고 고운 가을 하늘 아래 서울교회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가 열리니
 풍년 쌓여 풍년 고추 참깨 마늘에
 청정지역 가나리젖에 멸치와 마역
 잔치잔치 벌였네 모두 모였네
2. 햄버거에 수수전병 오뎅 국물에
 따끈따끈 구수한 해물전병에
 홍천(洪川)산장 맑은 물에 담은 식품이
 된장 간장 고추장도 선을 보이니
 건축 위한 정성어린 한마음이어
3. 의류패션 도자기에 가전제품에
 성화(聖火)의 기쁨에 성가 매아리
 올려퍼지는 서울교회 지역사회에

두루두루 퍼지리 믿음의 위력

4. 손에 손잡고 드리는 잔치에
 손발이 달도록 바치는 봉사예
 성취의 기쁨이 하늘에 닿아
 대치동 새 성전에 햇빛 비추니
 할렐루야 주님 향기 빛내어 보세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리어 보세
5. 어서어서 오시오 서울교회로
 믿음의 벽돌이 올라가는 날
 사랑의 철기둥이 세워지는 날
 소망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
 대치동 새 성전에 빛나는 아침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단신

21일(수) 10월 학습·세례식

10월 학습·세례식이 21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11일(주일) II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8일(주일) II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각각 실시되며 이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를 위해 19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문답은 20일(화) 오후 7시 403호에서 실시한다.

문의는 새가족부.

오늘 11시 고3기도회 진학과 취업 위해 기도

고3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열린다.

고등부(부장 박철훈 장로)에서는 진학과 취업 등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위한 이번 기도회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기도 후원을 하실 모든 성도들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피택 장로 5명 노회 고시 통과

우리 교회 피택 장로 5명이 15일(목) 소망교회당에서 실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남노회의 장로고시를 통과했다. 이날의 고시는 신·구약 성경과 장로회 헌법, 요리문답과 신조, 일반 상식 등의 시험과 면접이 있었으며 본 교회 피택 장로들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립식은 11월 22일 우리

교회 설립 제 7주년 기념일에 개최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초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박두호·서문석·하영수·왕경래·노송성 등 5명을 장로로 피택한 바 있다.

강남노회여전도회 성가제 중창단 참가

제11회 서울 강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성가제가 15일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열렸다. 우리 교회는 서울 강남노회 소속 14개 교회 여전도회 찬양대가 참가하는 이번 성가제에 9명의 중창단(반주 강민희 집사)을 파견, 은혜로운 찬양을 펼쳤다.

CBS 교회순례 오늘 II부 예배 녹음 방송

우리 교회 오늘 II부 예배 실황이 기독교방송(837KHz)의 교회순례 시간에 방송된다.

이를 위해 기독교방송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 주일 II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 실황을 녹음한다. 녹음된 내용은 당일 오후 5시 5분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되는 교회순례 시간에 방송된다.

한편 기독교방송에서는 CBS의 선교활동을 돕기 위한 회원 모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선교회원은 기도 후원과 아울러 1년에 1만 원씩 선교후원금을 내면 된다. 희망하는 성도는 지난 주에 주보와 함께 배부된 전단에 이름과 교회명을 기입하여 헌금함에 넣고 회비는 송금하면 된다.

동정

◇ 제 9회 전국녀성마비인 보치아 경기대회에서 김용훈 성도(사랑부)가 성인부 금상을, 박한샘 어린이(사랑부)가 아동부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 손종연 성도(제 1교구, 논현 8다락방)는 17일 역삼동에 '참분식'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순례자 컬럼

자기 비만증

자기 비만증에 걸려있는 이들이 있다. 진리를 찾고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만 방자하여 자칭 의인 노릇하는 이들도 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삶의 최우선을 삼는다.

자기 비만증에 걸린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합병증까지 갖고 있다. 가진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건만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 업적의 결과라고 까지 생각하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알리가 없다.

자기 비만증이 심해지면 수치심까지 상실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 하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얼굴에 기쁨기가 많아져 가족이 두꺼워져서인지 좀처럼 안색을 변하는 법도 없다. 죄짓고 오히려 자랑하고, 비난받을 짓 해 놓고도 자화자찬하며, 변명과 공격을 능사로 한다.

"주여, 자기 비만이 아닌 성령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⑤ 10월 19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이동원 목사)
- ⑦ 10월 26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김세열 총장)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찬양의 시간" 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전교인 성경인송대회를 위해
3.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